

뮌헨대학교 (LMU, Ludwig Maximilian University of Munich) 교환학생 보고서

I. 개요

1. 교환 프로그램 참가 동기

외국의 대학 생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에 입학할 당시부터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외국에서 락다운이 걸리자 교환을 미루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 코로나로 인한 통제가 완화되면서 꼭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 파견 지역/대학 선정 이유

유럽에서의 생활이 궁금했기 때문에 무조건 유럽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럽의 도시들 중에서 지리적으로 중심에 위치하고 치안이 우수하고 좋은 대학이 있는 뮌헨을 선택했습니다. 뮌헨에는 LMU와 TUM이 있는데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보고 싶다는 이유에서 뮌헨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3. 파견 지역/대학 소개

뮌헨은 독일 남동부 바이에른 주의 주도로 독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유럽 대륙 전체로 보았을 때는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반적인 생활 수준 및 물가가 독일에서 가장 높은 보수적인 부자 동네입니다. 도시는 깔끔하고 잘 정돈되어 있으며 대중교통 역시 이용하기 쉽습니다. LMU는 뮌헨에 있는 두 개의 큰 대학 중 하나로 뮌헨 시내 중심인 Maxvorstadt에 거의 모든 학과가 위치해 있습니다. 공대를 제외한 모든 단과대학이 있는 종합대학으로 독일에서도 명문 대학으로 인정받습니다.

II. 출국 전 준비사항

1. 비자 신청

대한민국 국민은 쉥겐지역에 90일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출국 전에 비자를 받는 것이 필수는 아닙니다. 비자를 받는 방법에는 출국 전 주한독일대사관을 통해서 받는 방법과 출국 후 현지 KVR을 통해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비슷합니다. 저는 독일 현지에 가서 비자를 받았는데, 독일의 행정처리가 굉장히 느리기에 출국 전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사전에 주한독일대사관을 통해서 비자를 발급해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지에서 받는 비자의 정식 명칭은 Residence Permit인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KVR에 미리 예약을 잡은 뒤 필요한 서류를 가져가면 됩니다. 필요 서류로는 안멜동 서류, 계좌 잔액증명서, 보험

가입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2. 기숙사 신청

LMU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지원할 때 기숙사 신청도 같이 하게 됩니다. 유럽 이외에서 온 교환학생들의 경우 시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경우 개인적으로 따로 거처를 찾아도 되지만 금전적인 면, 편리성 면에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III. 출국 후

1. 안멜둥

안멜둥은 시에 거주지 등록을 하는 것으로 현지 도착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서류 작업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직접 청을 찾아가서 등록했다고 들었지만 올 3월에 제가 했을 때는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서 했습니다. 뮌헨시 홈페이지에서 이메일과 서류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현지 생활

뮌헨이 있는 바이에른 주가 잘 사는 주인 만큼 물가는 서울보다 비쌌습니다. 단, 마트 물가는 크게 다르지 않은 반면 식당, 대중교통 등의 가격은 서울보다 비쌌습니다. 그리고 많은 곳들이 저녁 8시가 되면 문을 닫으며 일요일에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으로는 크게 버스, 트램, S반, U반이 있는데 이 모든 대중교통을 semester ticket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Semester ticket은 약 200유로로 학생증과 같이 제시했을 때 유효한 티켓으로 하나의 티켓으로 한 학기 내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U반은 시내만 다니는 지하철이고 S반은 시내와 교외를 연결하는 빠른 열차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뮌헨 시내에는 뉴욕의 센트럴파크보다 큰 영국 정원이 있습니다. LMU 본관과도 걸어서 10분 거리로 학교에 갔다가 들리기 편합니다. 매우 자유롭고 편안한 공원인 만큼 영국정원을 많이 즐기시길 바랍니다. 또 바이에른 주는 남쪽으로 알프스와 접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호수들과 산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호수들이 regional train을 타고 2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으며 대표적으로 Eibsee 등이 있습니다. 뮌헨 근교에 있어 S반을 타고 갈 수 있는 Starnbergersee 역시 유명합니다.

IV. 학업

1. 수강신청

수강신청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LSF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서울대와 같이 서로의 시간이 겹

치지 않는 수업들을 고르면 됩니다. LSF에서는 과, 학사/석사/박사 등등 여러 기준에 따른 검색도 가능합니다. 단, 수강신청을 했다고 성적표에 올라가는 수업이 아닌데, 학기 중 정해진 기간에 각 수업의 시험에 또 등록을 해야합니다.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시험 등록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수강신청만 하고 시험 등록을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강신청의 유무와 상관없이 시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목은 성적표에 올라가지 않게 됩니다.

2. 독일어 수업

여름학기의 경우 학기가 4월 중순에 시작하게 되는데 3월부터 약 한 달간 열리는 독일어 수업이 있습니다. 자신의 독일어 레벨에 따라 A1부터 C1까지의 수업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학기가 시작하기 전 독일에 빠르게 익숙해지고 교환 내내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기 좋은 기회입니다.

V. 소감

교환학생을 지원하기 전 교환학생을 갈지 말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약 6개월간의 교환학생 생활을 마무리 한 지금은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돌아 다니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6개월간 한국어 보다는 영어를 사용하며 생활하자 영어 실력 역시 발전한 것 같습니다. 비록 교환학생 중 많은 학점을 따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가치 있고 아깝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